



영화 '1987'로 돌아온 김태리

내 인생의 시위? 언니들 손에 이끌려 등록금 투쟁!

“영화 ‘아가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짧잘 이야기했거든요. 아젠 자중하려고요.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하하!”

호랑한 웃음소리와 시원스러운 성격은 여전하다. 하지만 김태리(27)는 1년여 동안 영화계의 분위기를 조금은 익힌 듯 했다. 지난해 데뷔작 ‘아가씨’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하고 나서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평가도 가감 없이 하더니, 27일 개봉하는 두 번째 영화 ‘1987’(감독 장준환·제작 우정필름)을 두고는 “아쉬운 점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는 귀여운 대답부터 내놓는다.

물론 김태리는 ‘1987’에서도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데뷔작에서 상순녀 주인을 속이는 발칙한 하녀를 연기한 그는 이번에는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는 1987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역할로 극을 이끈다. 데모보다 미팅에 더 관심이 많은 스무 살 여대생이 서서히 시대의 분위기에 눈 떠가는 과정이, 도화지 같은 김태리의 얼굴에서 하나씩 완성된다.

“부담? 영화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적은 없다. 일단 겪어보려고 한다. 다만 이번 영화는 김윤석, 하정우 선배님이 중간까지 이야기를 이끌고 나면 내가 등장한다. 혹시 흐름이 특 끊기면 어쩌나, 마치 서로 다른 영화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은 들었다.”

주목받는 대작에서 스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작업은 김태리가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연달아 맞는 상황이다. 신인으로서 ‘작품북’, ‘감독북’, ‘배우북’이 상당하다.

“작년에 ‘아가씨’로 처음 신인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진심이다. (이름) 선배들과의 작업이 오히려 좋다. 신인끼리 만들어가는 영화도 좋지만,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연기하는 경험은 가치 있다.”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의 모습을 가까이 관찰하는 과정은 김태리에게 자극이 되기도 한다. 이번 ‘1987’에서 주로 맞붙는 상대 배우인 강동원도 그런 존재였다.

“강동원 선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역사적인 사실을 연기하는 입장에서 정석대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다가가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갖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다.(웃음)”

어떤 배역이든 거뜨히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김태리에게 모든 연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럴 때면 곁에 있는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삼촌 역으로 만난 유해진과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연기가 할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유해진 선배님이 ‘나도 괴로워.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말하더라. 하하! 그러니 나도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김태리를 포함해 여러 배우들이 모여 만든 ‘1987’은 엄혹한 시대를 딛고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김태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실존인물들 가운데 유일한 가상의 캐릭터이자, 극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김태리는 “영화의 배경인 1980년대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바로 나”라며 “그동안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선 1987년 6월 학생들의 한복판으로 들어서지만 실제 김태리에게 광장이 모여 소리 치며 시위를 경험은 있을까.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를 깨달 줄 알았더니 그는 “대학 시절 등록금 투쟁”을 이야기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과 선배 언니들에 이끌려 대학 정문으로 나가서 외쳤다. 등록금을 낮춰달라고.(웃음) 시위는 그때 처음 해봤다. 다같이 즐겁게 소리치고, 도로를 점령하고 걷는 경험이 정말 새로웠다. 그런데 전적으로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다.”

연말과 새해를 ‘1987’과 보내는 김태리의 내년 계획은 빼곡하다. 상반기에 류준열과 함께 한 영화 ‘리틀포레스트’가 개봉하고, 곧바로 첫 드라마인 ‘미스터 션샤인’도 내놓는다.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맡은 김태리는 이병헌과 호흡을 맞춘다. 요즘 촬영에 한창이다.

“올해는 이상하게 모든 게 불안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을 만큼.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고, 좌불안석이었다. 작년에 많은 상을 받을 때는 실감하지 못하던 부담이 서서히 생겨서인 것 같다. 내년에는 심지어 아홉수가 시작되는데, 정말 큰일이다.(웃음)”

그야말로 쾌속 성장하는 배우인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엄살을 부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행복은 작은 거에서 오지 않나. 흥분만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는 법인데. 하하! 고민하다보면 나아갈 거라 여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잔다. 자는 게 최고다. 지금까지 만난 감독님들은 대부분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자는 나를 많이 부러워 하셨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 지난해 영화 ‘아가씨’로 혜성처럼 등장한 김태리는 12월 대작 중 하나인 ‘1987’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갑작스런 관심에 “올해는 모든 게 불안했다”며 연기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내 털털한 모습을 보였다.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학폭 논란’ 윤순하, 캐나다행 결정

배우 윤순하가 ‘학교 폭력 논란’에 연루됐던 자녀와 캐나다로 떠난다. 윤순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아들과 함께 캐나다행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설에 대해 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이민은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 단정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윤순하는 이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아들 역시 사건의 여파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순하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련회에서 한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측에 윤순하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가온차트, 지드래곤 USB 음반 인정

지드래곤 USB앨범이 내년부터는 가온차트 측으로부터 ‘음반’으로 인정받는다. 가온차트 측은 26일 “급변하는 뉴미디어 및 디바이스 환경에 부합하고 새로운 음악시장 개척에 대한 음악차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가온차트 정책을 변경한다”면서 “앨범의 정의를 ‘저작권 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뮤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올해 논란이 되었던 지드래곤 USB앨범과 같은 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온 앨범차트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검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검찰개혁위 측에 따르면 위원들 사이에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고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당시 신인이었던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장자연 리스트’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현재 25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안건이 검토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추가 8개 안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26일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3사와 대진 MBC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00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 1TV는 646.31점, KBS 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2013년 재허가 심사에서는 3사 모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소율, 신곡 발표 다음날 현역 입대

가수 지소율(김지현·29)이 26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지소율은 이날 오후 1시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이곳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아 21개월 동안 복무한다. 2019년 9월 15일이 제대 예정일이다. 앞서 2월 지소율은 의무경찰 특기병에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포기하며 현역 복무에 대한 의지를 키워왔다. 그는 복무 직전까지 음악 활동을 활발히 했다. 25일 공개한 신곡 ‘아일 비데이’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지소율은 연습생 시절부터 몸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 인턴트를 나와 6월 가수 박재범이 이끄는 하이 어뮤즈와 계약을 체결했다.